국 어

해설위원: 정채영 교수

<총평>

2016. 6. 25. 서울시 문제는 문법의 중요도를 실감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영역별 문항수는 '현대국어문법 5, 중세국어문법 1, 어문규정 5, 어휘 5, 비문학 독해 1, 국문학사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론 문법은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어문규정도 4대 어문 규정 중 로마자표기법을 제외한 규정들이 출제되었다. 서울시 시험의 특징인 국문학의 시대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비문학 독해는 서울시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서울시 시험을 치를 때는 문법과 문학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0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끄나풀 – 새벽녘 – 삵쾡이 – 떨어먹다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닯다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캉아지
④ 보조개 – 숫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③
'치켜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캉아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① 삵쾡이 → 살쾡이/삵, 떨어먹다 → 털어먹다
② 세째 → 셋째, 애닯다 → 애달프다
④ 광우리 → 광주리, 강남콩 → 강낭콩

0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 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 포도 는 장사 밑천을 대준 나 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 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①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간 행동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그의 낙천적인 면모를 드러낸 것이며, 이 행동만으로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② 참외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망쳐버린 것과 그의 아내가 달아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장사 밑천을 대준 나에 대한 고마움은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에서 알 수 있다.
④ 그가 가져온 '포도'를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표현한 것에서 '그'를 대하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 작품 분석
이태준, 「달밤」
1933년 10월 『중앙』에 발표된 이태준의 단편소설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황수건'은 삼선학교 급사로 있을 때, 도 학무국 시학관을 잡고 잡담을 하다 결국 쫓겨 나온다. 또한 성북동 신문배달원이 되어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그는 보조배달원 자리에서조차 밀려난다. 학교 앞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지만 이 일 역시 장마로 망쳐버린 데다가 그의 아내마저 달아나 버린다. 그래도 '황수건'은 달 밝은 밤엔 노래를 부르며 가는 낙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나'라는 관찰자가 '황수건'의 직접적 행동을 보여 주기보다는 '나'의 주관성에 의해 진술되는 측면이 강하다. '황수건'의 좀 모자라는 행동이나 생각을 곁에서 지켜보는 '나'를 통해, 작가 이태준의 순수 소설적인 면모가 나타난 작품이다

0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④
④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탈락'은 두 개의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동음탈락'은 '같은 모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동일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가-+-아서'의 경우 어간 '가-'의 'ㅏ'가 탈락하고, 뒤에 있는 어미 '-아서'와 결합하여 '가서'가 된다.
나머지는 ①,②,③은 모두 '축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① 자음 축약은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나서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이다. '옳다'가 [올타]로, '옳지'가 [올치]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 축약'이다.
② 모음 축약은 두 모음이 만날 때 앞뒤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주다'의 어간 '주-'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는 것은 '모음 축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③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서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이다. '막혀'가 [마켜]로, '맞힌'이 [마친]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 축약'이다.

0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정답 ②
수사와 관형사의 구별은 조사의 결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수사는 체언이라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할 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한둘'은 "한둘(이) 눈에 띌 뿐"처럼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다.
① '한'은 '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③ '두'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④ '두세'는 '개'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0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②
② '비나리'는 세 가지의 뜻을 지닌 어휘이다. "「1」 『민속』 걸립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 『민속』 걸립패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마당굿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 놓고 외는 고사 문서. 또는 그것을 외는 사람. / 「3」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 이 중에서 '비나리(를) 치다'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을 의미한다.
① 노느매기: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몫.
③ 가리사니: 「1」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知覺)/ 「2」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0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④
'배지, 앙코르, 콘테스트, 난센스'는 모두 바른 표기이다.
① 옐로우 → 옐로(yellow)
② 알콜 → 알코올(alcohol), 써클 → 서클(circle)
③ 도너츠 → 도넛(doughnut)

0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④ 해명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거의 없'다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독세대원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과 단독세대원인 경우에 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① 신문 보도에서, (1)에서는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이라는 표현으로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나, (2)에서는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단독세대원' 이라는 표현으로 상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신문 보도(2)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문맥상 '발급일자'와 '대리인'은 신청이라는 서술어를 공동으로 취할 수 없다.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므로, '발급일자를 제시하거나 대리인을 신청하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0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① 디귿이[디그시], 홑이불[혼니불]
② 뚫는[뚤는], 밝히다[발키다]
③ 핥다[할따], 넓죽하다[넙쭉카다]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원녕]

정답 ①
'디귿이[디그시], 홑이불[혼니불]'은 표준 발음법에 맞다.
② **뚫는[뚤는 ⇨ 뚤른]**
표준발음법 제12항의 3규정의 [붙임] "'ㄶ, ㄵ'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뚫는'은 [뚤는]으로 소리 나는데, 이후 유음화를 거쳐 [뚤른]으로 발음한다.
한편 '밝히다[발키다]'의 발음은 바르다. 표준발음법 12항의 1규정의 [붙임 1] 규정의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ㄽ)'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밝히다'는 [발키다]로 발음한다.
③ **넓죽하다[넙쭉카다 ⇨ 넙쭈카다]**
표준발음법 제10항의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넓죽하다'는 [넙쭈카다]로 발음한다.
한편, 표준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핥다'는 [할따]로 발음한다.
④ **흙만[흑만 ⇨ 흥만]**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흙만'은 [흥만]으로 발음한다.
한편 표준발음법 제20항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원령'은 [동:원녕]으로 발음한다.

0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 기>
놀리- + -ㅁ
↓(파생)
손 + 놀림
↓(합성)
손놀림

① 책꽂이
② 헛소리
③ 가리개
④ 흔들림

정답 ①
'놀림'은 '놀다'의 어근 '놀-'에 사동접사 '-리-'가 추가되어 '놀리-'가 되고, '놀리-'에 파생 접사 '-ㅁ'이 결합된 구조이다. '손놀림'은 1차 파생법을 거친 '놀림'에 '손'이라는 어근이 결합하여 2차 합성법을 거친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보기>와 같은 짜임으로 형성된 단어는 ①의 '책꽂이'다. 책꽂이도 '꽂-+-이'의 1차 파생 후 '책+꽂이'로 2차 합성이 된 단어이다.
② '헛소리'는 접사 '헛'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가리개'는 어근 '가리'와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흔들림'은 어근 '흔들-'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 '흔들리다'의 활용형이다.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정답 ④
'集中力(집중력, 모일 집/가운데 중/힘 력)'은 바르게 표기되었다.
① '중요'는 '重要(무거울 중/要 구할 요)'로 써야 바르다.
② '대중'은 '大衆(大 큰 대/衆 무리 중)으로 써야 바르다.
③ '중개사'는 '仲介士(仲 가운데 중/介 끼일 개/士 선비 사)'로 써야 바르다.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 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정답 ②
제시된 시는 시인 구상이 6.25 종군 체험을 바탕으로 쓴 15편의 연작시를 모은 '초토의 시' 중 8번째 작품이다. 동족상잔에 대한 뉘우침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같은 시대적 배경이 나타난 작품으로는 ② 이범선의 「오발탄」을 들 수 있다. 「오발탄」은 이범선이 지은 단편 소설로, 월남한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분단의 비극성을 증언하고 황폐화된 전후의 남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① 김주영의 「객주」: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된 대하소설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기 한말의 상인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변동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보부상, 노비, 타락한 관료, 농민 등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유착을 다루었다.
③ 박경리의 「토지」: 1969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95년에 5부로 완성한 대하소설이다. 지주 집안인 최씨 일가가 구한말에 몰락하는 것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과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전망 제시 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④ 황석영의 「장길산」: 황석영이 지은 대하 역사소설로 197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조선 숙종조에 실재했던 인물인 장길산을 주인공으로, 실록과 야사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소설적으로 재구한 것이다.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 마당이 넓다.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③
㉢ '넓다'는 형용사이다. '넓다'의 어간 '넓-'에 사동 접사가 결합된 ㉣ '넓히다'는 동사이므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① 사동문에는 '-게 하다'가 결합된 통사적 사동(㉡)과 '사동 접사'가 결합된 파생적 사동(㉣)이 있다.
② ㉡의 경우 주동문의 주어 '아이가'는 사동문에서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실현되며, ㉣의 경우 주동문의 주어 '마당이'는 사동문에서 '마당을'이라는 목적어로 실현된다.
④ ㉠은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이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은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은 '누가', '무엇을'이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①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는 '甚至於(심지어), 於此彼(어차피), 酒煎子(주전자)'로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이다.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다.
② 학교(學校), 공장(工場), 도로(道路), 자동차(自轉車)는 한자어이다.
③ 고무(gomme, 프랑스), 담배(tabaco, 포르투갈), 가방(kabas, 네덜란드), 빵(pao, 포르투갈), 냄비(nabe, 일본)는 귀화어이다.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는 비어이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철수 밥** 먹는다.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① ㉠에서 철수 , 밥 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 그런 심한 말을 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 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정답 ③
'오늘 내가 본'은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① '철수'는 주어이고, '밥'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이다.
② '그 사람이'는 절이 아니라 '구(句)'이다. '구(句)'는 주어와 서술어의 성분을 갖추지 못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이다. '그런 심한 말'은 목적어 성분이 관형절로 실현된 것이다.
④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명사절인데, 문장 속에서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의 기능을 한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③ 騎虎之勢 ④ 脣亡齒寒

정답 ③
騎虎之勢(기호지세, 騎 말탈 기/虎 범 호/之 갈 지/勢 기세 세)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① 登高自卑(등고자비, 登 오를 등/高 높을 고/自 스스로 자, 卑 낮을 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
② 角者無齒(각자무치, 角 뿔 각/者 사람 자/無 없을 무/齒 이 치):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④ 脣亡齒寒(순망치한, 脣 입술 순/亡 망할 망/齒 이 치/寒 찰 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보 기>
>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 되었다.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 『인문평론』, 『문장』 등 유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 - ㉡ - ㉢ - ㉠ - ㉣'의 순서가 바르다.
㉠ 「삼대」, 「흙」, 「태평천하」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된 것은 1930년대이다.
㉡ 이광수의 '무정'은 『매일신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것은 1917년이므로, 1910년대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창조』, 『백조』, 『폐허』등의 동인지가 등장하여 다수 동인지 중심 문학기라고 불리던 시기는 1920년대이다.
㉣ 『인문평론』, 『문장』등 유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진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 암흑기에 해당한다.
㉤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이해조의 '자유종'은 신소설로 신소설이 유행한 시기는 1900년대이다.

17. <보기>는 비치다 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1 【…에】 ❶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 ❷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 ❸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 ❹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 ❺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 2 【…에/에게 …으로】
>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 3 【…에/에게 …을】 ❶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 ❷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깨우쳐 주다.

① 1❶: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1❸: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2: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3❶: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②
②에서 '비치다'는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의 뜻으로 바르게 쓰였다.
①의 '비치다'는 1❺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의 '비치다'는 3❷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깨우쳐주다.'는 뜻으로 쓰였다.
④의 '비치다'는 2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 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ㄱ, ㄴ, ㅁ,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ㄷ, ㅌ, ㄹ, ㅂ,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④ 연서(連書)는 ㅇ 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ㅸ 이 있다.

정답 ④
연서(連書)는 훈민정음에서, 순경음(脣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脣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로, 'ㅱ', 'ㅸ', 'ㆄ', 'ㅹ' 따위가 있다.
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ㄱ'이 아니라 'ㄴ'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을 '가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ㄱ→ㅋ/ ㄴ→ㄷ→ㅌ/ ㅁ→ㅂ→ㅍ/ㅅ→ㅈ→ㅊ/ㅇ→ㆆ→ㅎ"과 같은 방식인데, 여기에 'ㄹ'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은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이다.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모두 28자이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대화를∨하면∨할수록∨타협점은∨커녕∨점점∨갈등만∨커지게∨되었다.
② 창문∨밖에∨소리가∨나서∨봤더니∨바람∨소리∨밖에∨들리지∨않았다.
③ 그∨만큼∨샀으면∨충분하니∨가져갈∨수∨있을만큼만∨상자에∨담으렴.
④ 나는∨나대로∨갈∨데가∨있으니∨너는∨네가∨가고∨싶은∨데로∨가거라.

정답 ④
④ '대로'와 '데'의 띄어쓰기는 모두 바르다.
① 타협점은∨커녕 → 타협점은커녕: '은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소리∨밖에 → 소리밖에: '소리밖에'의 경우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그∨만큼 → 그만큼 / 있을만큼 → 있을∨만큼: '만큼'은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붙여 쓰고, 앞말이 용언인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서 쓰인 것이므로 띄어 쓴다.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溫<u>古</u>知新　② 麥<u>秀</u>之嘆
③ 識<u>者</u>憂患　④ 左<u>考</u>右眄

정답 ②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麥 보리 맥/秀 빼어날 수/之 갈 지/嘆 탄식할 탄)'에서 '수'는 '秀(빼얼날 수)'로 바르게 쓰였다.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溫 따뜻할 온/故 옛 고/知 알 지/新 새로울 신)'에서 '고'는 '古(옛 고)'가 아니라 '故(옛 고)'를 쓴다.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識 알 식/字 글자 자/憂 근심할 우/患 근심 환)'에서 '자'는 '者(사람 자)'가 아니라 '字(글자 자)'를 써야 한다.
④ '좌고우면(左顧右眄, 左 왼 좌/顧 돌아볼 고/右 오른 우/眄 애꾸눈 면)'에서 '고'는 '考(생각할 고)'가 아니라 '顧(돌아볼 고)'를 써야 한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①	④	②	②	④	④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③	③	②	④	④	②